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정도의에 앞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 기본취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가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공감되고 양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당대회결정판찰에로 강력히 인도함으로써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당대회결정안은 앞으로 5년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과업들이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비상방역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제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조치를 취하려는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이와 함께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저애



도, 설계도인 계획부터 혁신적으로 실속있게 수립하고 전당, 전국, 전민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러나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보고는 금방 당대회에서 결정하고 당대회문헌에 대한 집중학습과 방향토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올해 경제사업계획에 당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특색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주요경제부문들의 계획을 작성하는데서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들에서 기안한 수자들을 거의나 기계적으로 종합하다보니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늘어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정보보장의 미명하에 능히 할수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할것도 계획을 낮추 세우는 폐단들이 나타났다.

보고는 이러한 경향들이 우심하게 나타난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하면서 생산능력과 토대를 확장하기 위한 작전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현행생산을 내밀면서 앞으로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게 새로운 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락후하고 뒤떨어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며 필요한 공정들을 보강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면으로 계속)

하는 부정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도 진지하게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의정들을 제기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1.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2.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3. 당중앙위원회 구조집을 수정함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규약해설》심에 대하여

5. 조직문제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보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먼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째 경제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새 전망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첫째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5개년계획도 첫째 계획이 잘 세워지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최종목표점령으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고는 새로운 5개년계획은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것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당대회결정판찰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의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올해 사업을 잘하자면 그 작전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국가적으로 5개년계획의 중심공업에 제기된대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으로 설정하고 투자를 집중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는 한다. 우리에게 실지 절실하고 하나의 성과로 열거지를 얻을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첨입식으로 힘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

보고는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중시하고 혁신적으로 구현하여야 할 문제는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계획에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운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보고는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체들의 생산물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소비적절케를 맺어주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체로 시급히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요하게 기간공업부문의 기업체들과 외아들공장들에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가적인 장려조치와 특혜조치를 취하며 수입지표들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하는데서 인재를 중시하며 각 분야의 과학기술인재와 관리인재, 당일군들을 육성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지금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데서 제일 길된것은 인재가 부족한것이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하자고 하는 지금 새형의 인재를 키우는것은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당과 국가사업,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재육성사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보고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차 나라의 한계 부문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 행정일군, 당일군을 육성하는것을 5개년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기 분야에 필요한 인재는 자체로 키우는 원칙에서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며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의 실패를 과악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서 인재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들에게 의거하는것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인재를 장악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으며 당대회결정도 관철할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재를 대담하게 동용하고 실천속에서 육성하여 당과 국가앞에 내세우는것이 모든 일군들의 공통적인 사업태도, 사업기풍으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착상력과 조직전격력, 장악력이 우수한 경영인재, 관리인재들을 발굴하고 의도적으로 키우며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할줄 아는 당일군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째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당적, 전국각적, 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분위주의에 중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국가적인 비상방역규율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양시키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올해 인민경제 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보고에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자원개발 및 채취, 기계공업, 립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현행생산을 진행하면

서 생산토대를 보장하는데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제들이 제기되고 그 실현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였다.

그리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올해 사업의 중심을 철도를 정비보강하는데 두고 철길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보고는 건설건설공업부문에서 평양시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고 하루망공사를 계획대로 끝내는것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과 지방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세멘트생산능력확장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각이한 건재품들에 대한 수요를 책임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는 경공업부문이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경공업제품생산을 최대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설비들의 원성능회복과 새로운 생산능력조성, 지방공업과 단천지구광업총국의 활성화를 올해 사업중심으로 규정하시였다.

보고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시, 군강화토선을 관철하고 지방공업공장의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기 위하여 올해에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번듯하게 꾸려내세우기로 하였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경공업성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부문에서 올해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어로활동과 양식, 양어를 활발히 벌려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상업, 체신,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 관광부문에서 올해 수행하여야 할 주되는 과제들이 상세히 지적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올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보고는 농업부문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철저히 집행하여 알곡생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히 다져야 한다고 하면서 농업성을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농사작전을 예견성있게 잘하여야 하며 특히 재해성기후에 대처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확품종들을 육성하고 다수확품종재배면적을 늘일데 대한 과업,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 품종별특성과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과업, 영농기전으로 저수확지를 옥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강하게 내밀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트락트르와 농기계생산단위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체제와 시설물들의 복원, 관수면적의 확장을 다그치며 간석지건설과 새땅찾기, 토지정리를 힘있게 내밀고 축산물과 남새, 과일, 공예작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올해 농사의 성과가 달려있는 영농물자보장을 책임적으로 하며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없애고 농촌리당사업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과학, 문화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과학기술부문에서 올해 현존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과학기술인재들을 100% 장악하는것과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중등교육부문에서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체제를 세우며 대학들에서 정보기술, 생물공학, 화학, 재료부문 전문가들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에서 올해 뚜렷한 개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전염성질병들을 결정적으로 없애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새로운 보건시설들과 현재 진척중에 있는 제약공장, 의리기공장, 의료용소모품공장들의 건설을 일정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고는 침체와 동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문학예술부문의 실패를 강하게 지적하고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창작창조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출판보도부문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중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보도전, 언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체육부문에서 각종 경기들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대남부문과 대외사업부문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하여 올해에 확정한 투쟁목표와 사업계획들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특별히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할데 대한 과업도 제기하였다.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데서 국가적으로 모든 생산물과 수입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수자적으로 장악하고 류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여야 한다.

경제관리문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해결하려면 정치적방법과 경제기술적방법, 행정조직적방법을 융계 결합시켜야 한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경제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현시기 5개년계획을 향한 시발점에서 경제지도일군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자신의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보고는 우리 일군들이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5개년계획의 종착점을 향하여 완강하게 돌진하는 정신력과 투지를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인것만큼 일단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무조건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법부문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빈틈없이 담보하는것을 중핵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사업의 화력을 올해 과업수행에 집중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올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는데서 당조직들이 방향타 역할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는 올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보고를 결속하시면서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군들속에 내재하고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되었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분과별협의회를 통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정확히 확정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본 전원회의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비범한 통찰력과 심오한 사색으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째 진군의 명확한 구상을 펼치시고 여러날에 걸쳐 전원회의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면서 혁명의 지휘성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에게 전진과 혁신의 강력한 무기를 안겨 주신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며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제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인 보고에서 올해에 전당과 전체 인민앞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계획작성에서부터 옮겨 구현하지 못한 결함들을 심각하게 분석비판하였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사상관점과 기본세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 첫째 전투목표를 혁신적으로 과학성있게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함으로써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5개년계획수행과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법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전당을 당중앙의령도사상을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만드는 총성의 진일체로 준비시켜 당대회결정관철과 올해 과업집행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히 추동할것을 다짐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과별협의회가 있었다.

전원회의에서는 분과별협의회에서 결정서초안작성과정에 제기된 보충의견들을 종합한 보고가 있었다.

분과별협의회를 통하여 작성된 결정서초안은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들과 방침들이 정확히 구현되고 올해 각 부문별 사업방향과 전투목표들의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충분히 반영되였으므로 인정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를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혁명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위협하고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을 단호하게 수술해버릴 혁명적의지와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정권기관과 법기관들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고에서 모든 일군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저조하게,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그것을 종식시킬수 없으며 그 대가를

자기자신과 우리 인민들이 값싸게 치르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운명을 걸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들을 무지비하게 억제소멸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보고를 접하면서 참가자들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들과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다시금 새기며 보다 강력한 방법론과 해결책을 받아안았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어갈 결심을 굳게 가지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당중앙위원회 구조집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구조집수정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구조집이 조선로동당이 항구적으로 들고나가야 할 로선과 전략전술, 정치리념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정치적인 구호들로 수정됨으로써 수령의 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절대적인 권위를 옹위하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수정한 구조집을 당중앙위원회 구조집으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조선로동당 규약해설〉 심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규약해설》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8차대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규약해설집을 잘 만드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능력과 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규약해설집은 응당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시고 이번에 당규약해설집을 심의하여 내려보내면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생활을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만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충분한 사전연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당규약해설집초안을 조선로동당규약해설집으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조직문제》를 심의하였다.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상정된 모든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4일동안 매일 매 순간 지도기관 성원들이 긴장되고 동원된 속에서 당과 국가사업토의에 진지하게 참가해준데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이는 자기 인민앞에 다진 서약을 엄숙히, 철저히 리행하여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임무를 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고 표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본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하나하나의 의제들은 우리 혁명사업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중요하고도 절박한 우리의 당면과업에 대한 명백한 인식들을 공유하고 뚜렷한 방향을 확정하였다고 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면에서 계속)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하는 내부의 부정적요소들을 제압소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무기와 전당을 무장시키고 불리일으킬수 있는 정치적수단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문제해결의 출로를 바로 찾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지향시켜나가는 자기의 령도예술을 한층 세련시키고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당 제8차대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들에게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 과업들을 반드시 현실로 전환시키려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보여주었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필수적인 자기 발전의 훌륭한 공정을 밝힌것만큼 당중앙위원회는 결정된 과업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와 철저한 집행으로써 혁명사업을 전진시키고 인민들이 개변된 실상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이 올해

사업에서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과업들중 제1순위라는것을 명심하고 방역사업에서 엄격하고 철저해야 하며 모든 정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최대의 긴장성과 경각심을 견지하고 전국에 강한 방역규율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과 국가경제의 정비보장, 자립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당중앙이 이미전부터 예견성있는

준비사업을 진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시고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세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담보하게 될 결정적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회의에서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전원회의결정을 묵숨같이 귀중히 여기고 당결정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랑하는 자기 인민에게 우리의 충정을 검열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동지들이 더 노력하고 분투하여 우리

당의 응대한 투쟁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혁명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줄것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사회주의건설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리정표를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무한한 격정속에 우러르며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혁명앞에, 인민앞에 끝까지 충직할 맹세를 담아 우렁찬 박수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과 함께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2월 11일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예술로 당과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인민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

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면서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조국과 인민을 령도하여 혁명의 년대들을 거대한 변혁과 승리로 빛내여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담아 인민이 심장으로 터쳐부른 기념비적인 찬가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전대미문의 엄숙한 난관과 도전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 조국과 인민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온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총만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존엄높은 강국의 새 령사를 펼쳐가시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과 오직 조선로동당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인민의 충성의 일편단심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로동당시대 명곡들이 려이어 장내를 울리였다.

위대한 당을 노래하는 송가들로 장중하고 승엄한 음악세계를 펼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민헌신,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함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진두

에 높이 모시였기에 전진도상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다 해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백두의 붉은기, 향도의 당기를 승리의 기치로 높이 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갈 인민의 불타는 충성과 철석의 신념을 풍만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준 공연은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고조를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대에 오르시어 훌륭한 예술공연으로 조선로동당의 혁명리선과 사상에 절대적

인 지지를 표명하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사업성과를 열렬히 축하해준 출연자들의 성의에 감사를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내를 진감하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진군대오의 앞장에서 혁명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책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참가자모두를 격려해주시였다.

본사기자



# 무궁토록 올려갈 태양찬가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느냐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선돈  
인가  
문무총호 겸비하니 모두가  
우려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드나

지금으로부터 30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손수 붓을  
드시고 자자구구에 천금같은 뜻을  
담아 쓰신 《광명성찬가》이다.

아버이 수령님께서 생전에  
김정일동지는 시대를 이끄는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훌륭히 갖추었으며 시대와 력사  
앞에 세기적인 업적을 쌓아올  
리었다고, 김정일동지는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을것  
이라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진정 《광명성찬가》에는 공화  
국의 인민들만이 아닌 전세계 진  
보적인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이 클  
발마다에 그대로 숨배여있다.

일찌기 나라없던 그 세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항일  
대전 의 총포성을 자랑하로  
들으시며 성장하신 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조선을  
빛내일 애국의 맹세를 실천하시  
기 위하여 한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비범한 예지와 분석력, 예리한  
안목과 끝없는 정력으로 인류사  
상사의 최고봉을 정복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  
이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은 세계  
가 우러러보는 사상의 강국으로  
완연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  
한 해박한 식견을 지니시고 시대  
와 혁명이 제기하는 거창한 과제  
들을 완벽하게 풀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평도는 이 땅우  
에 창조와 건설의 빛나는 시대를  
열어놓았고 세기적인 변혁이 끊임  
없이 일어나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쳐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



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  
에 깊이 아로새겨진 하나의 수자  
가 있다.

167만 4 610여리!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  
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어가신 현지도로정의 총  
연장길이이다.

지구둘레를 17바퀴 돈것과  
맞먹는 거리를 쉬임없이 걸으시며  
오로지 조국의 통성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은 진  
정 세계가 알지 못하는 길쭉한

령도자, 절세의 애국자이다.  
언제인가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고했던 고난의 행  
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끄시  
던 나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걸고걸으신 머나먼 길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지구를 몇바퀴 돌고  
도 남을 거리와 맞먹는다는 사실  
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이께  
이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혼연히  
웃으시며 나는 현지시찰한 단위  
가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것을 생  
각해본적도 없고 현지시찰을 영  
어나 평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  
다. 나는 오직 나라와 민족의 자  
주적존엄과 리익을 지키고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유족  
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 일  
념으로 현지시찰의 길을 걸고있  
다. 우리 조국이 부강하고 우리  
인민이 잘살게 되면 나는 더 바  
랄것이 없다. 내가 고난의 행군시  
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  
나 헌신하였는가 하는것은 력사  
의 증거자들이 후세에 전할것이  
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  
비를 다 맞고 그 어떤 고생을 겪  
을지언정 인민들은 언제나 행복  
만을 누리려 한다는것이 그의  
응심깊은 마음이었다. 지금도 사  
람들이 노래하는것처럼 썰기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

을 그의 업적을 합치면 오직 인  
민뿐이다.

모든 사색과 활동의 첫자리에  
조국과 인민을 먼저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  
나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보검을  
더 높이 드시고 조국수호의 길을  
걸으시였다.

다른 나라 같으면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이 엄혹한 시련의 나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  
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  
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

시며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였다.

우리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먼 앞  
날의 일도 아니라는 드림없는 신  
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앞장에서  
울리지 못하게 하신 가슴뜨거운  
사연, 출근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기다려 철차에서 쪽  
잠에 드신 이야기...

동해지구에서 서해지구으로 하  
루밤사이 단행하신 1 000여리  
의 강행군길, 인민들이 잠에서  
깨어날새라 철차의 기적소리마저  
울리지 못하게 하신 가슴뜨거운  
사연, 출근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기다려 철차에서 쪽  
잠에 드신 이야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고성을  
다 하시며 걸고걸으신 선군의 길  
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그 길에서  
공화국이 그 어떤 적대세력도 넘  
보지 못하는 불멸의 강국으로 되  
었고 바로 그 길에 인민의 리  
상과 꿈이 비친 대경사들이 연이  
어 펼쳐졌다.

하기에 세계의 많은 인사들은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버이시며 탁월한 위인이시다.  
그이를 영도자로 모시어 조선을  
위대한 나라로 존엄떨쳐왔다》,  
《조선혁명과 반제자주위업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성스러운 생애는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  
이다》, 《김정일령도자각하는  
진보적인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  
신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의 책동  
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있  
던 시기에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이끌어나가시는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공화국  
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  
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한결같은 칭송과  
애국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  
과 더불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조국과 인민, 인류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장군님께서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뿌려놓으  
신 만민의 씨앗들이 훌륭한 결실  
을 맺도록 헌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에서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모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  
시한 휘황한 진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은 세계가 경탄하고 우러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태양칭송의 노래,  
《광명성찬가》는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국발전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민족의 대경사, 《백두광명성》 탄생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총포성이 울리는  
백두밀림에서 탄생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  
과 창조한 미래를 기약하여  
준 력사적사건이었다.

지금도 민족의 창창한 미  
래를 받들어올린 크나큰 기  
쁨과 환희에 넘쳐 항일빨찌  
산들이 러치던 감격의 웨침  
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그들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장군님께서 장차 민족의 앞  
길을 밝게 비칠 찬란한 향도성  
이라는 뜻에서 그이를  
《백두광명성》으로 칭송하  
였으며 백두산밀림은 물론

무산, 온성, 연사, 신흥, 양  
덕, 평양, 신령, 묘향산, 구  
월산 등 온 나라 각지에 있  
는 수림지대의 나무들에 민  
족의 대경사를 알리는 뜻깊  
은 글발들을 새기였다.

《겨레여 백두산에  
백두광명성 솟았다》, 《삼  
천리강산에 밝은 빛 뿌리며  
웃어난 백두광명성 만세》,  
《2천만 백의민족 대통은  
백두광명성 출현》, 《조선아  
민족아 높이 자랑하라 아침  
제 밝은 내 나라에 광명성  
솟아 너를 비친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을  
조선의 행운, 대통운으로 긍

복속에 어린시절부터 애국의  
큰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출중한  
자질, 숭고한 품모를 지니시  
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강그리 바치  
시여 민족사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민족자주위업이 오늘도 곳곳  
이 이어지고 승승장구하고있  
는것은 79년전 2월의 환희로  
그날의 력사적사건을 증경하  
고있다.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체현  
하시고 민족의 다함없는 축

복속에 어린시절부터 애국의  
큰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출중한  
자질, 숭고한 품모를 지니시  
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강그리 바치  
시여 민족사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민족자주위업이 오늘도 곳곳  
이 이어지고 승승장구하고있  
는것은 79년전 2월의 환희로  
그날의 력사적사건을 증경하  
고있다.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체현  
하시고 민족의 다함없는 축

##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이른새벽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시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중성동부근에 이  
르시였을 때 어디선가 이른새  
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딸랑딸  
랑하는 방울소리가 울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리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거기에서는 한  
녀인이 손수레를 옆에 세워  
놓고 방울을 울리고있었다.  
그에게로 다가가신 위대한

인민을 위한 당부  
장군님께서 무엇을 파는  
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자기앞에 서계시는분이 누  
구신지 미처 알아볼지 못한  
녀인은 죽을 판다고 혼연히  
대답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그에게 국값은 얼마이고  
원재료는 어떻게 보장받으며  
인민들의 반영은 어떤가, 언  
제부터 이렇게 봉사하고있는  
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때

뻘히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죽이나 파는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는것 같은데 절  
대로 그렇지 않다고, 인민  
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죽만 팔지 말  
고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시  
원한 김치며 물고기자반, 산  
나물음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가공품도 만들어 팔  
도록 하라고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 작은 철엽수

절세의 위인을 끝없이 존경하며  
열렬히 흠모하는 세계 진보적인인  
류의 마음이 깃든 선물식물들 가운데  
는 벨지끄의 식물학자 다니엘 데  
벨데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올린 작은철엽수도 있다.

수목에 대한 교류 및 육종사업을 진  
행하고있던 다니엘 데 벨데르는 어  
느날 친구인 일본의 이름있는 원  
예학자 가모 모도데루가 20여년동  
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육성한 꽃  
에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시고  
그이의 탄생일을 맞으며 삼가 선물  
로 올리였다라는 감동적인 소식에 접  
하게 되었다.

조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  
고있었지만 여러 출판물을 통하여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알게 되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가  
슴속깊이 간직하고있던 그는 온 세  
계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께 자기  
의 성의를 표시하고싶어 수목원에  
선물식물토전을 꾸려놓고 모든 정  
성을 다하여 가꾸었다.

그는 조선으로 달리는 마음의 총  
등을 달렐길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소망  
을 헤아리시여 조선을 방문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리하여 다니엘은 주제78(1989)년  
3월 작은철엽수를 비롯한 아름  
은 원림식물들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조선을 방문하였다.  
다니엘 데 벨데르는 선물을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올리것을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부탁하면서 장군님께서  
조선을 방문하도록 배려를 돌려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본사기자



새로운 승리를 향한 힘찬  
진군으로 날과 달이 흐르는  
공화국에 뜻깊은 광명성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세인을 놀래우는  
얼마나 커다란 전변과 기적같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는가.

본사기자

결사대의 앞장에서 위험  
천만발 발사장에도 나가지  
고 용장한 새 거리를 밀며  
세우는 김철로반이 언제  
나될지 모를 위험한 속에서  
도 검덕의 피해복구지역을  
찾으시여 그곳을 광산도시로  
훌륭히 일터세를 구상과 설  
계도를 펼쳐주시였다.

본사기자

진정 이 땅에 일떠선 모  
든 창조물들과 인민의 값진  
재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건설을 기어이 꽃피우시기  
위해 바쳐온 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고생과  
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부름이  
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  
우는 공화국인민들이 있게  
어버이장군님의 부강조국  
건설원인은 앞으로 더욱 활  
짝 꽃피게 된 나라, 시간이  
다르게 그 모습이 변모되어  
가고 어디서나 《세상에 부  
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

본사기자 박철남

시초

# 2월 에 넘 치 는 인 민 의 노 래

## 장 군 님 생 자

김태룡

늘 표고계시는 소중한것 있다면  
호르는 세월에도 지지 않는 추억과  
더불어  
더더욱 마음깊이 간직하신것 있다면  
우리 원수님께 있어  
그것은 무엇이던가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  
아프게 멍울로 남는다 하시었거니  
더불어  
그 어디 가지셔도 장군님생각  
백가지 일 하고도 만가지 북 꽃피우  
서도

가시는 길 차창밖에 비껴어오고  
아득한 밤하늘 별빛에도 어리어오는  
기쁘시던 더욱 사무치게  
힘겨우실 땀 못건디게 간절해지시는  
오, 그것은 장군님생각

마음속엔 오직 하나 장군님생각  
호르는 해와 달을 하루와 같이  
장군님의 유혼 가슴에 품고  
위민헌신 한길만을 걸으시는 원수님  
에 실려  
장군님 계신 곳에 울려가라고

걸어가는 그이 사색에도 깃들고  
언제나 바쁘신 그이 걸음에도 갈마  
들어  
마음속으로 장군님과 나누신 이야기  
심중을 터치 아뢰이는 뜻깊은 말씀  
아니 새겨진 날 하루라도 있었던가

그토록 열렬하고 그리고 절절하게  
원수님 마음에 짝 차있는 장군님생각  
그것은 장군님과 함께라는 절대적인  
믿음  
언제나 힘을 주고 고무를 주시는  
장군님 길이 모시고 세월의 끝까지  
이 조선 펼쳐가실 위대한 맹세이거니  
민음

어버이의 유혼 하나하나 이루실 때  
마다  
장군님께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  
는가  
절절히 말씀하시고  
인민의 재부가 하나둘 늘어날 때면

그이 계서 우리의 생활엔  
장군님과 떨어져 호르는 날이 없었어라  
그이 펼쳐가시는 모든 승리와 영광  
속에  
장군님 태양의 그 존안 빛나고있어라  
아, 원수님 마음속 가장 가까이엔  
영원한 우리 어버이장군님이 계시어라

## 세 상 끝 까지 울 리 여 가 라

리송일

어버이를 그리고 그리는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마음 담아내고  
오늘도 평양역시계에서 울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은은한 그 선율을 귀기울이면  
눈가에 어려오는 자애로운 장군님모습

2월의 이 아침엔 그리움 더욱 사무쳐  
온 나라 강산 어디서나 터치는 목소리  
장군님, 그리운 어버이장군님!  
눈내리는 북방의 험한 길 가실 때에도  
오성산 칼벼랑길 오르실 때에도  
굴이굴이 고개고개 그 자욱 따라서며

안녕을 바라는 축원의 맘 담아내고  
장군님 계신 곳으로 울려가던 노래여

정녕 몇몇해였더냐  
배일은 탄생일인데 평양으로 오실가  
안타까이 기다려지던 마음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원하지 않았더냐  
노래여, 구름처럼 산을 넘고 바람결  
에 실려  
장군님 계신 곳에 울려가라고

그 뜨거운 추억을 안고  
평양역시계는 오늘도 울리누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의 강국일인 꽃피우는 강산에서  
나날이 행복이 커갈수록 더해만 가는

## 당 중 앙 의 불 빛 을 우 리 르 며

리철준

누구나 장군님생각으로  
잠 못 드는 광명성절 이밤  
집집의 창가마다 호르는 불빛아래서  
우리는 그려보노라  
당중앙창가의 불빛을

어버이장군님 계신 곳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어름이던 달과 별에  
겨울이면 밤하늘 눈송이에  
간절히도 실어보내던 곳이어

하나 당중앙창가의 그 불빛  
언제 한번 꺼진적 있었던가  
인민들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피는  
아, 어머니의 눈빛같은 당중앙불빛은  
세월이 갈수록 밝은 빛 뿌리었거니

그 불빛아래서 펼쳐지지 않았더냐  
기쁨으로 이어진 이 땅의 복된 세월이  
존엄함을 삶을 두고 누구나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며  
얼마나 좋으랴  
눈높인 첩령길, 가파른 오성산길...  
험한 길만 걸으시던 장군님  
광명성절 꽃바다속에 모시였으면  
단 한번만이라도  
인민의 웃음속에 만시름 푸시었으면

아, 한평생 사랑다해 정을 다해  
인민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어버이  
하늘같은 그 은정 정녕 못 잊어  
영원히 모시고 받들 인민의 마음실고  
평양역시계여 울려가라 그리움의  
송가여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 행 복 을 말 하 고 회 망 을 쫓 으 로 피 운 시 대

행복을 말하고 회망을 쫓으러 피운  
시대  
벽찬 승걸로 고동친 전변의 새 력사가

아이들이 노래부르며 가는 학교길  
그 불빛이 있어 것처럼 밝고밝았더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머나먼 앞날도  
그 불빛이 있어 환히 바라보았어라  
시련과 고난의 먹장구름 밀려들 때  
에도  
그 불빛은 희망의 등대로 우릴 이끌었  
어라

장군님 한생 밝히신 당중앙의 불빛  
오늘은 원수님 그 불빛아래에서  
더 좋은 매일의 설계를 펼쳐시고  
더 휘황할 앞날 밝혀주시다  
장군님 맡기신 인민의 마음에 품으  
시오

누구나 잠 못 드는 광명성절의 밤이면  
마음에 파스리 비쳐드는 빛

오, 이밤도 우리의 원수님  
당중앙창가의 그 불빛아래에서  
장군님뜻과 념원 기어이 이루어질  
신념과 의지 뜨겁게 불태우시려나

## 인 민 의 마 음 담 아 시 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들을수 있는  
위민헌신-가슴을 치는 이 부름앞에서  
문노니, 우리 원수님께 있어  
인민은 하늘이던가 세상의 전부이던가

인민을 위하시는 그 진정 너무도 웅심  
깊고  
주시는 그 사랑 너무나 극진하여  
스스럼없이 아버지라 부르는 원수님  
심중을 터놓고 하신 그 말씀은  
새기면 새길수록 눈물겨워라

아,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오는 인민  
그 인민이 그토록 귀중하시어  
우리 원수님 뜻깊은 당대회장에  
이민위헌 그 글발 빛뿌리도록 해주시  
였어라  
인민을 운명의 하늘이라 부르시였어라

인민이 행복하면 장군님 기뻐하시기에  
인민을 위한 일에선 만족을 모르시며  
얼백가지 기쁨우에 천만가지 기쁨

인민의 마음 담아시고  
2월의 밤하늘에 울리는 노래소리여  
조국의 미래를 펼쳐가려는  
당중앙창가의 눈부신 불빛  
찬란한 향도의 그 빛바다속  
창조의 새날이 밝아오네  
...

## 위 민 헌 신 의 세 계

김영일

꽃피울  
소망과 념원을 불태우시는 원수님

장군님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 의지  
그 얼마나 세차게 풀어버렸으면  
태풍이 불어치는 수도의 거리  
인민이 격정되시어 누벼가셨으랴  
물먹은 로반 위험한 칠길우로  
인민행렬차를 서슴없이 몰아가셨으랴

세계를 휩쓰는 무서운 악성병마속에서  
지켜주신 은덕 한량없건만  
오허려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  
다고  
인민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신  
아, 위대한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세상 제일 친근하신 원수님 계시어  
장군님 수놓으신 이민위헌의 력사는  
위민헌신의 력사로 즐기차게 이어지고  
세상이 온갖 풍운에 시달린다 해도  
이 땅의 인민들 언제나 복받은 삶 누려  
가거니

인민을 품어안아 하늘로 받드시는  
원수님 그 품 떠나 우리는 못살아  
이민위헌, 위민헌신의 빛바람이 넘쳐  
따사로운 내 조국땅 인민사랑의 화원  
에서  
인민은 영원히 원수님만 따르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63차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사를 드리는 니시도교조선체1초중급학교 소년단원들(2017년 4월)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광명성절경축공연(2019년 2월)

한없이 뜨거운 사랑으로 이역의  
아들딸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은 태양의 모습으로 오늘도 해  
외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멀리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따듯  
이 품에 안아주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  
주시었다.

주체79(1990)년 7월 어느날이  
였다. 총련일군들의 생활현황을  
로해하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서  
총련일군들은 오직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당의 크나  
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  
기의 모든것을 총련의 강화발전  
을 위해 바치고있다고, 황금제  
일주의사회에서 보수나 명예를  
바라지 않고 오직 조국과 총련  
조직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열  
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치는 그  
들의 마음은 정말 금을 주고  
도 살수 없는 귀중하고도 승고  
한 애국심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고시하시었다.

애국자라는것이 별것이 아니  
다.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총련일군들이 다름  
아닌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

진정한 애국자!  
이 최상의 믿음, 값높은 칭  
호를 받아안은 총련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어버이,  
탁월한 스승을 모시고 애국위  
업을 다그쳐나가는 자기들이  
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  
복한 사람들이라는 한없는 긍  
지감이 가슴속에 차넘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차디  
찬 이역의 하늘아래에서 살  
면서 언제나 어머니조국을 그

리위하는 총련일군들과 동포  
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조  
국방문의 넓은 길을 열어  
주시고 친금같이 귀한 시간  
을 내시어 그들을 품소 만나  
도 주시었다.

주체81(1992)년 4월 28일에  
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  
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상  
공민들, 예술인들을 위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시었다.

연회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저녁은  
마음놓고 실컷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한가정의 단란한 분

국의 해외공민단체로 내세워  
주시고 동포들의 크지 않은  
애국적소행도 높이 평가하시  
며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도  
안겨주시신분 위대한 장군님  
이시었다.

재중동포들이 조국을 잊지  
말라고 영화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우선적으로 보내주시  
고 조국의 노래와 무용작품  
들을 수록한 녹화 및 녹음  
카세트와 CD들도 보내주시  
었고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  
족의 노래와 춤을 배우고 빛

행사에 참가하는 해외동포  
조직방문단성원들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불러주시어  
대양군의 가까이에서 더욱  
해주시었다. 그리고 재중조  
신인총련합회의 책임일군을  
중앙주도대회의 주석단에 내  
세워주시고 추모행사가 끝난  
뒤에는 해외동포방문단들을  
위한 위로연까지 베풀어주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총련  
과 재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  
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

은 이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  
도 민족교육사업의 강화발전  
을 위해 헌신분투하며 애국  
총련의 바탕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있는 총련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헤아려주시  
며 총련교육일군대표단 성원  
들을 품가까지 부르시어 특  
별히 따로 사랑의 기념사진  
도 찍어주시었다.

하기에 재일동포들을 비롯  
한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자기의  
안걸을 환히 밝혀주시고 새  
로운 혁신으로 떠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스승  
이시라고 심정의 목소리를 터  
치고있는것이다.

얼마 전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총련  
조직들과 단체들에서 드린  
축전에도 재일동포들의 뜨  
거운 마음이 잘 반영되어있  
다. 그들은 축전에서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  
에서 쓰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  
로 더 뜨겁게 품어안으실것이라  
고 확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하해같은 은정과 크나큰  
믿음을 삶의 기둥으로 새겨  
고 총련을 공화국의 존엄함  
은 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길에  
고고성을 터친 북동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녕 알  
수 없었다. 얼마나 다스리고  
뜨거운 사랑이 내 인생의 앞  
길에 꽃추단지처럼 펼쳐져있는  
지를.

지금도 철없는 유치원생

## 진 정 한 애 국 자 들 로 내 세 워 주 시 며

내이고싶어하는 동포들의 소  
망을 애국심으로 헤아리시고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조국  
의 유능한 예술지도교원들도  
보내주시었다.

재중동포들의 절절한 소  
망을 헤아려주시어 예술단  
들을 무어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에 참가하도록 해주시고  
동포예술인들을 위해 국민급  
전용열차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사랑에 재중동포들  
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  
리고흘리었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  
지고있다.

이때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  
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  
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자신의 귀중한 한식술이라고  
하시며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  
도 축복만, 축전, 친필서한을  
거들거들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개회사에서 위대한 수령님들  
을 높이 모시고 조국과 인  
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  
쳐 투쟁한 혁명선열들과 함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의 이름을 불러주시었으며 재  
일본조선인축단 단장이 총  
련중앙상임위원회의 축하문  
을 선함으로 광복하도록 하  
는 특전을 베풀어주시었다.

제14차 전국교원대회때에

리 찬 용

수기

## 영원한 추복속에 누리는 행복

해마다 2월이  
오면 내 마음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 궁전으로  
더욱 달려가곤  
한다.

한것은 내 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오늘과 같  
은 복받은 삶  
을 누리게 된것  
도 어버이장군님  
의 대해같은 사랑  
을 떠나 생각할  
수 없기때문이다.

지옥이나 다름  
없는 남녘의 비  
좁은 감방안에서  
30년간 갇은 고  
초를 다 겪은 나  
의 아버지(비전향  
장기수 리재룡)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에  
떠날뻔려 공화국  
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그  
토록 따듯한  
정의 대지에서  
《총각할아버지》  
로 불리우던 나  
의 아버지가 가  
정을 이루고 청  
춘의 희열을 되  
찾지 못했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  
이 행복한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이 나  
할수 있겠는가.

지금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나라일  
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태어난 딸의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자기들의  
간절한 청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시고 온 나라 인민들  
의 추복속에 태어난 얘기가  
를 추복이라고 지어주자  
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신  
대해같은 사랑에 대하여 눈  
물겹게 이야기하곤 한다.

이렇게 나는 어버이장군님  
의 남다른 추복속에, 장군님  
과 특별한 정을 맺고 이 땅에  
고고성을 터친 북동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녕 알  
수 없었다. 얼마나 다스리고  
뜨거운 사랑이 내 인생의 앞  
길에 꽃추단지처럼 펼쳐져있는  
지를.

지금도 철없는 유치원생

이었던 내가 올린 편지를  
보내주시고 활달한 필체로  
《2008. 7. 23  
김정일》  
이라고 써주신 사랑의 글발  
을 우러를 때면 장군님께서  
나라의 기둥으로 어서 자라  
나라고 나의 등을 두드려주  
시는것만 같아 속구치는 격  
정을 금할수 없다.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품어주고 안겨주고  
보살피시는 그 따듯한 품속  
에서 나는 김정숙악아스와  
창광유치원, 창선소학교와  
강반석혁명학원을 거쳐 오  
늘은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  
움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있다.

철없던 그 시절엔 다 모  
르고 받아안았던 고택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 오늘  
은 그 사랑을 대를 이어  
우리 원수님께서 부어주시다.  
지금도 9년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창립 66  
년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  
단체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아  
니 글씨 내가 대표로 뽑히  
어 주석단에까지 앉는 영광  
을 지니게 되었다. 철부지였  
던 나로서도 너무 꿈만 같  
아 두눈을 비비고 또 비비  
었는데 얼마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품가까지 모시고  
두번씩이나 영광의 기념사진  
을 찍게 되었다. 그날 나는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구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  
에 매여달려 어쩔바를 몰라  
했다.

그후 강반석혁명학원시절  
엔 조선인민군 제4차 청년동  
맹초급단체비서열성자대회에  
참가하여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냈으며 지난  
해에는 당창건 75돐경축 열  
병식 로동적위용군대에 참가  
하고 대를 두고 같이 전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말이지 우리 집벽들을  
을 가득 채우고있는 사랑의  
기념사진들과 친필글발들을  
우러를수록 우리 가정에 끝  
없이 들려지는 친어버이사랑  
에 눈시울이 젖어들고 가슴이  
뿌듯해짐을 금할수 없다.

어찌 이것이 나 하나, 우  
리 가정에만 흘러드는 사랑  
의 추복이라.  
비전향장기수들모두에게,  
아니 온 나라 모든 가정에  
비껴드는 위대한 어버이의  
따사로운 추복이길 바란다. 해  
위헌, 위민헌신을 숭고한 정치  
리념으로 삼으신 절세위인들  
의 따사로운 추복속에 이 땅  
의 인민들이 살고 《세상에  
부럽없어라》의 노래가 새기  
를 이어 끝없이 울려가고있  
는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과 가족들에  
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마를줄 모  
르는 샘처럼 끝이 없다. 네  
가 공부를 잘해서 나라의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하곤 하시었다.

나는 이제 다가오는  
광명성절에 어버이장군님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우  
러려 이렇게 아뢰이려다.

(어버이장군님! 장군님께서  
친히 이듬지어주시신 추복  
입니다. 장군님의 추복을  
받았던 제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추복속에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대를 이어 안겨주시는 하늘  
같은 그 사랑에 불타는 심  
장을 바쳐 충성으로 보답하  
렵니다!)

리 축 복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밝혀준 진로를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장엄한 진군에 떨쳐나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는 즐거운 설명절날 그 어디에나 민족적 향취가 한껏 흘러넘치었다.

회절과 랑만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을 흥그롭게 바라보며 우리는 풍치수려한 대

# 방문기 설명절과 류다룬 인연을 맺은 애국렬사가정

동강반에 특색있게 일떠선 미려과학자거리로 향하였다. 평천구역 미래동 81인민반에서 반일애국렬사 안록주의 유가족이 살고있었던 것이다.

수령님께서 오가자를 혁명촌으로 꾸리시던 날에 그를 삼성학교 교원으로 사업하도록 해주셨다.

《1931년 설명절날은 아버지의 한생애에서 가장 잊을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차광수, 김원우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겸소한 설음식을 마련하였습니

다. 뜻깊은 그 자리에서 수령님께서 일제의 만주침략과 관련한 선전물을 집필하여 조종인민의 단결과 공동투쟁에 크게 기여한 저의 아버지의 사업성과를 축하하여 잔을 들자고 하시였습니다.》

너무도 과분한 치하에 안효덕은 몸둘바를 몰라했다고 한다. 선전물을 쓰고 큰 효과를 보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구체적인 가르침의 결과였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말로 《홍루몽》이며 《삼국연의》 이야기를 잘하여 중국사람들마저 혀를 차게 하던 안효덕에게 글쓰는 일을 자주 맡기셨다. 한번은 일제의 침략야욕을 폭로단죄하고 조종인민이 단결하여 공동의 원수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습니

## 안록주로 다시 래여나기까지

말랑~ 초인종소리가 울려 자 집주인인 안희두가 나와 우리를 반겨주었다.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설인사를 주고받으며 방안에 들어서니 아들딸들과 손자, 손녀 온 가족이 모여 명절분위기로 흥성이고 있었다.

자식들을 일일이 소개해주고난 안희두는 누구에게나 잊을수 없는 날이 있듯이 자기 가정에도 새길수록 뜨거운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날이 있다고, 그날이 바로 설날이라고 하면서 어느 한 방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거기에는 청년시절의 안록주사진이 걸려있었다. 지성미가 넘치면서도 강직해보이는 안록주의 모습은 띠 인상적이었다.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안희두는 오늘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때로부터 꼭 9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 아버지의 이름을 말입

니까?

《저의 아버지의 본이름이 안효덕이었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록주로 고쳐주시었습니다. 안록주라는 이름은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김혁, 차광수와 함께 언제 가도 잊지 못할 이름이었습니다.》

안희두의 말에 의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처음 알게 되신것은 길림에서 활동하시던 때였다고 한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명성은 넓은 지역에 알려져 국내는 물론 일본, 연해주와 만주 각지에서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며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왔는데 그들이 운데는 차광수, 김혁과 함께 길림육문중학교를 졸업한 안효덕도 있었다.

열정적이고 대중과 잘 어울리고 선동연설과 강의도 구수하게 잘하는 안효덕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길림지구반제청년동맹 주요성원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한창 이야기에 심취되어있는데 《할아버지...》 하고 손자, 손녀들이야말로 달리와 할아버지의 팔과 무릎에 감겨들었다. 그리고는 중조할아버지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졸라댔다.》

《한, 녀석들두... 벌써 몇 번씩이나 듣고도 성화냐?!》 그러면서도 《그래그래 들려주지.》라며 안희두는 대견한듯 손자, 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버지는 아버지이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고 장준일대와 관천, 단동, 국내의 신의주와 의주일대에서 지하조직을 꾸리고 확대강화하는 사업에 참가하였습니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말로 《홍루몽》이며 《삼국연의》 이야기를 잘하여 중국사람들마저 혀를 차게 하던 안효덕에게 글쓰는 일을 자주 맡기셨다. 한번은 일제의 침략야욕을 폭로단죄하고 조종인민이 단결하여 공동의 원수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습니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말로 《홍루몽》이며 《삼국연의》 이야기를 잘하여 중국사람들마저 혀를 차게 하던 안효덕에게 글쓰는 일을 자주 맡기셨다. 한번은 일제의 침략야욕을 폭로단죄하고 조종인민이 단결하여 공동의 원수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습니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국말로 《홍루몽》이며 《삼국연의》 이야기를 잘하여 중국사람들마저 혀를 차게 하던 안효덕에게 글쓰는 일을 자주 맡기셨다. 한번은 일제의 침략야욕을 폭로단죄하고 조종인민이 단결하여 공동의 원수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하였습니

세계가 룬대주라는 뜻에서였습니다. 그처럼 젊으신 나이에 온 세상을 한몸에 안고 계시는 그의 웅대한 세계에 아버지는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

다. 이렇게 되어 안효덕이었던 저의 아버지는 (E.C)의 강령을 그대로 답아 안록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창 이야기에 심취되어있는데 《할아버지...》 하고 손자, 손녀들이야말로 달리와 할아버지의 팔과 무릎에 감겨들었다. 그리고는 중조할아버지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졸라댔다.》

《한가정의 울타리에 머물러있던 안효덕으로부터 민족해방, 인류해방을 위해 한몸 바쳐 싸우는 안록주!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어 아버지는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삶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안록주가 최후를 마친 때로부터 스무해, 혈육들의 기억속에서도 희미해져가고 있었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그를 잊지 않고계셨다.

《1967년 봄 어느날 오가자 명절을 쇠고 헤어진 후 15년 만이라고 말할올리는 안록주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고 하시며 오가자에서 있는 일들을 추억하시었다.》

《한가정의 울타리에 머물러있던 안효덕으로부터 민족해방, 인류해방을 위해 한몸 바쳐 싸우는 안록주!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어 아버지는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삶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안록주가 최후를 마친 때로부터 스무해, 혈육들의 기억속에서도 희미해져가고 있었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그를 잊지 않고계셨다.

《1967년 봄 어느날 오가자 명절을 쇠고 헤어진 후 15년 만이라고 말할올리는 안록주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고 하시며 오가자에서 있는 일들을 추억하시었다.》



저녁노을 비껴 올밀과



## 수백년 자란 룡악산은행나무

그루의 아름답기움을 보는 듯 하다. 해설문에 의하면 나무의 높이는 28m, 뿌리목둘레는 3.7m이며 나무갓너비는 16.5m이다.

세그루의 은행나무들은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를 지켜 싸울 뜻을 품은 세 승려가 산을 내리기에 앞서 각각 씨를 뿌린것들이었다고 한다. 그후 평양성탈환전투에 참가한 그들은 자기의 한복숨을 다 바쳐 승병부대의 지휘기를 서로서로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끝날때 올밀봉마루에 꽃고야말았다고 한다.

## 속담과 뜻

◆ 일년지계는 봄에 있고 일월지계는 아침에 있다. 그해에 할 일은 봄에 계획하고 그날 할 일은 아침에 계획한다는 뜻으로 일에 서 계획이 아주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무슨 일이나 신중하게 라 산해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 일하는데는 소리가 날개. 유쾌한 환경속에서 일하는것이 훨씬 성수가 나고 힘들지 않으며 흥겨움을 이르는 말이다.

## 우리 선조들의 태양흑점관찰기록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천문관측을 진행하여왔다. 조선에는 고구려왕궁터인 안학궁역의 천성대(천문대)와 고려의 개성 만월대역의 천성대, 신라 경주의 천성대 등 많은 천문관측기지가 있었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천문관측기지에서 태양과 달, 별의 관측, 기상기후관측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태양에 대한 관측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 변화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기록하였다.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고구려시기에 벌써 태양의 흑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다는 것이다. 한편 고려사람들은 태양흑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찰기록을 남겼다.

고려박물판에는 고려시기의 천문학발견을 보여주는 태양흑점관측에 대한 《고려사》천문관개의 기록들이 보존되어있다. 《고려사》천문지에는 1105년 1월부터 시작하여 고려 말기에 이르러까지 태양흑점과 관련한 관측기록이 50여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고려에서 태양관측사업이 더 세심하게 진행되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유럽에서 태양흑점에 대한 기록이 17세기초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태양관측분야에서의 성과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찬란한 문화를 보여준다.

누구나 설명절 하면 먼저 떠올리는 우리의 민족음식이 떡국, 지짐, 강정, 약과, 수정과와 같은 설음식들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한해의 민속 명절들중에 제일 큰 명절인 설명절이 오면 갖가지 민족음식들을 먹으며 즐겁게 보냈다.

떡만 놓고보아도 찰떡을 시루로 쪄낸 다음 떡메로 쳐서 만든 찰떡, 흰느림떡, 하얗다고 하여 《백설기떡》이라고 부르는 설기떡, 흰 쌀을 가루내어 끓는 물로 반죽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든 흰떡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흰쌀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장국에 넣

고 끓인 떡국을 설음식 가운데 으뜸이라 일러왔다. 올해 설명절에도 각지의 봉사망에서는 떡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설음식봉사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한가정의 울타리에 머물러있던 안효덕으로부터 민족해방, 인류해방을 위해 한몸 바쳐 싸우는 안록주!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어 아버지는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삶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 생활과 친숙해진 미술적인 서체들

산업미술에서 미술적인 서체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임의의 글씨가 서체로 되자면 조형예술적으로 완비하고 독특한 개성이 있으며 대중속에 일반화할만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있는 서체들로서는 현재 공화국에서 쓰이고있는 3대표준서체들인 천리마체, 청봉체, 광명체와 함께 평양체, 붉은기체, 옛 글씨체 등의 붓글씨체들 그리고 미술적인 서체

와 인쇄체가 있다. 미술적인 서체는 표현대상의 주제사상적내용에 맞게 미술적형상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서체이다. 다시말하여 대상의 주제사상적내용을 돕기 위하여 미술적으로 조형화, 예술화한 서체를 말한다. 미술적인 서체는 날을 따서 높아지는 인민들의 정서적요구와 문명수준에 맞게 각종 상표도안과 상업봉사간판도안, 출판물 등에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공화국에서 어린이들과 학

생들을 위한 공우유체에 《공우유》라고 동심에 맞게 씌여진 서체와 양말상표도안에 꽃잎을 형상하여 《꽃쪽》이라고 씌여진 서체, 미려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의 건물들에 붙어있는 일부 간판들에 씌여진 서체 등은 모두 미술적인 서체들이다. 산업미술부문에서는 미술적인 서체들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인민들이 보다 명명하고 유쾌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 비타민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 몸안에 어떤 비타민이 결핍되어 생기는 비타민결핍성질병에는 해당된 비타민의 치료량을 써야 한다. - 임신부, 젖먹이어린이들은 생리적특성으로 하여 요구량이 많으므로 해당된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다. - 노인들은 효소계통이 장애되고 흡수가 저지므로 비

타민을 젊은이들보다 25% 더 써야 한다. - 사람들은 직종에 따라 비타민요구량이 다르다. 중로동을 하는 사람은 비타민 B1, B2, PP, C를 많이 써야 하며 유태가스와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많이 써야 한다. - 고열, 수술후 열성소모성 질병환자들과 항생제를 오래

쓰는 사람들은 비타민의 량을 늘여야 한다. - 비타민제는 많은 량을 오래동안 쓰지 말아야 한다. 비타민B1을 많이 쓰면 피로감, 머리아픔, 부정맥 등이 오며 비타민D를 많이 쓰면 심근, 동맥, 뼈에 칼슘침착이 생길수 있다.